

2022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심사평

■ 시각예술창작지원 분야

2022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 지원한 작가들의 작업은 팬데믹의 현 비상 상황을 반영하듯, 기후 위기, 재개발, 소통 부재 등 당면한 현실을 주요한 작품의 주제로 드러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심사숙고 끝에, 다음 세 작가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양쿠라 작가는 해양 쓰레기라는 인류의 재앙을 화두로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업을 꾸준히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 해양 쓰레기라는 ‘물성’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가시화하고 감각화하느냐에 대해 고민했다. 동아시아 전역을 다니며 해양 환경 생태를 살펴보고, 그만의 시각적 언어로 실천한 행보를 아카이빙하고, 재생산함으로써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가의 반성적, 발전적 사유의 결과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성홍 작가는 재개발 단지에 ‘버려진 산수화’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사물 이미지를 감각화, 신체화하여 연결된 '신체-경험'으로 확장시키는 전시를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체험한 잉여 환경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체와 환경에 관한 방법론적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지영 작가의 'cloud' 프로젝트는 작가의 시그니처가 되는 구름의 이미지가 담은 상상적 이미지를 경유하여, 보다 확장적 의미의 소통 공간을 상상한다. 아울러 전시 차원을 넘어서서 오픈스튜디오, 쇼케이스 등의 다양한 시도로 서로 간의 ‘연결’을 시도하려는 실험성이 기대된다.

올 한 해 동안 선정 작가들이 어떠한 시각 언어와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을 건넬지 궁금하다. 기나긴 봉쇄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펴고 소통할 그 날을 기다리듯, 세 작가의 전시 소식을 기다리게 될 것 같다. 모두의 건투를 빈다.

심사위원 강은주, 이정화, 신혜경